

중국 고건축 기행(4)

Travels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山西省을 중심으로

김도경 /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by Kim Do-Kyoung

1995년 10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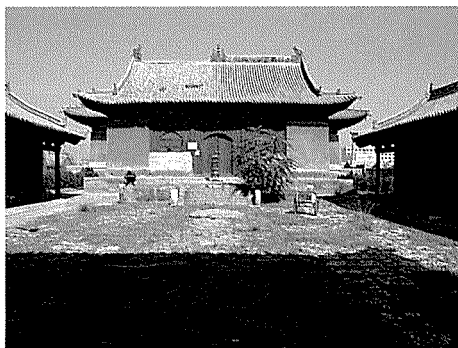
오늘부터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大同은 큰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숙박은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그마한 시골마을을 돌아다녀야 한다. 샤워는 커녕 잠자리가 마땅할 지 걱정이다. 오늘의 첫번째 목적지는 朔州(朔縣)에 있는 崇福寺이다. 朔州로 이동하기 위해 오전 7시 50분 大同역을 출발하는 기차를 탄다. 硬坐라고 하는 딱딱한 의자가 있는 일반칸이다. 기차 안은 중국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로 정신이 없다. 게다가 담배는 왜그리 피워대는지…….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시각에 朔州역에 도착했다. 역 앞에는 자전거 택시가 줄을 서있다. 손쉽게 이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를 가로질러 崇福寺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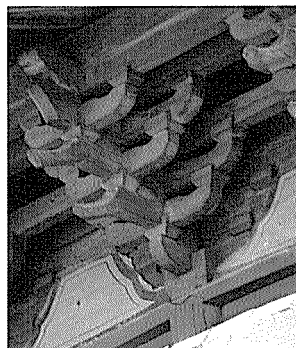
金代의 배치기법과 목조건축 - 朔州 崇福寺

崇福寺는 朔州시내 東街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시가지였다. 절의 규모에 비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조그마한 山門은 굳게 닫혀 있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수리중이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동행한 중국인 학생 黃偉가 동분서주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관리인이 나타났다. 이 관리인은 멀리서 온 우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黃偉가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清華大學에 다닌다는 점에 마음이 끌렸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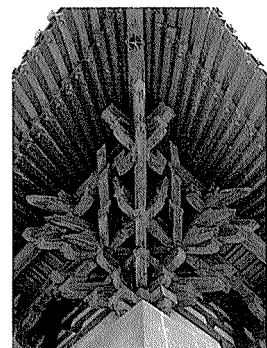
山門 앞에서 관리인을 기다리면서 벽에 걸려있던 안내문과 배치도를 살펴보았다. 崇福寺는 唐麟德2년(665년)에 창건되었다. 遼代에 '林衙院' 라는 관아로 사용되다가 統和年間(983년-1011년)에 '林衙寺' 로 개명하였다. 이후 金天德2년(1150년)에 '崇福禪寺' 로 개명하였다가 清乾隆年間(1736년-1795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절의 규모는 꽤나 큰 편으로 남향하고 있었다. 남북의 중심축을 설정하고 앞에서부터 山門-金剛殿-千佛閣-大雄寶殿-彌陀殿-觀音殿이 배치되어 있다. 千佛閣앞에는 鐘·鼓樓가 있으며, 大雄寶殿 앞에는 동서로 地藏堂과 文殊堂이 있다.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담장을 쌓아 寺域을 구획하였다. 탑이 없고 중국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院落¹⁾형 배치도 아니다. 金代에 이루어진 배치형식으로 보인다.



崇福寺 大雄寶殿 정면



崇福寺 千佛閣 상층의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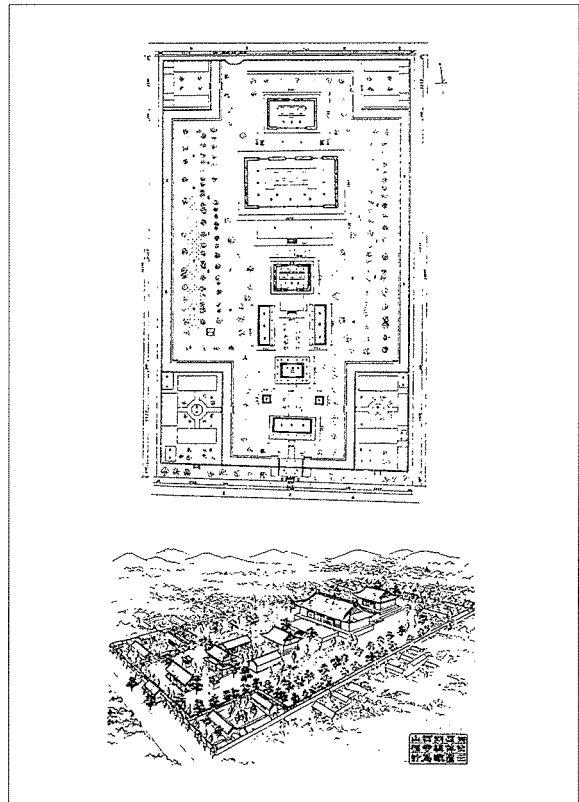


崇福寺 彌陀殿 귀포와 추녀

무겁게 보이던 山門이 열렸다. 山門을 통과하자 金剛殿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金剛殿은 天王殿이라고도 불리우며, 淸乾隆년간에 중건되었다. 내부에는 四天王像과 二金剛이 모셔져 있다. 전면에 외부로 노출된 퇴를 둔 맞배집으로 우리나라의 사당이나 大成殿과 비슷한 형식이다. 기둥 상부와 柱間에 공포가 구성되어 있다. 공포는 간결한 형식으로 내외 1출목이다.

千佛閣은 2층의 樓閣式 건축으로 2층에는 난간을 돌려 사람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입면이 흥미롭다. 직사각형 평면의 건물 몸체 주변으로 한 간을 덧달아 내었다. '副階' 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副階로 인하여 지붕은 2중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副階 지붕의 전면과 후면 어간 부분만을 좀 높게 하여 별도의 지붕을 구성하였다. 이것이 입구를 돋보이게 하고 정면성을 부각시켜 민낯한 지붕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千佛閣은 佛經을 보관하는 건물이다. 일반적인 중국사원에서 藏經閣은 절의 맨 뒤에 위치하는데 반하여 이곳에서는 藏經閣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千佛閣은 明成化年間(1465년-1487년)에 건축되었는데, 사용된 공포가 낯설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 중국건축의 공포, 특히 扃에서 주도한 건축물의 공포는 상당히 규격화되어 경직된 느낌을 준다. 그러나 千佛閣의 공포는 달랐다. 어디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까? 충남 서산에 있는 開心寺 大雄寶殿의 공포가 떠올랐다. 開心寺 大雄寶殿은 조선초기의 건물이다. 金剛殿과 비슷하거나 조금 앞선 시기의 건축이다. 千佛閣의 상층공포는 외3출목이다. 출목수가 하나 많고 보머리가 다른 부재와 같은 단면크기로 돌출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雲工과 살미 외단의 牛舌형이 開心寺 大雄寶殿과 닮았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발견이었다. 답사를 통해서나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책을 통해서 얻기 어려운 즐거움이다. 관리인에게 내부를 볼 수 없느냐고 물어보았으나 거절당했다. 살짝 들어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大雄寶殿 앞에는 院落이 형성되어 있다. 崇福寺에서 유일한 四合院式 구성이다. 大雄寶殿은 明成化5년(1469년)에 중건되었다. 三寶殿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崇福寺 배치도 및 복원조감도(출처:朔州崇福寺彌陀殿修繕公正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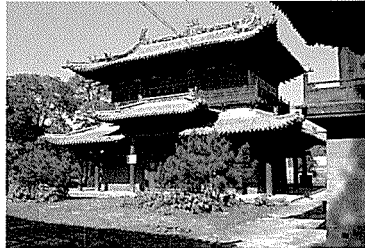
佛·法·僧이라고 하는 불교의 三寶를 의미하는 말이다. 정면 5간의 규모로 기단 앞에는 넓은 月臺를 두었다. 전후면 어간에 출입을 위한 문을 달고 정면 어간 양 옆의 협간에 창을 두었을 뿐, 나머지 면은 모두 두꺼운 벽체로 처리하였다. 柱間에도 공포를 배치하였으며, 그 형식은 외2출목이다. 전체적인 외관은 彌陀殿과 觀音殿의 외관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공포는 千佛閣과 동시대적인 양식을 보이고 있다.

彌陀殿은 정면7간, 측면4간으로 崇福寺에서 가장 큰 건물이다. 金皇統3년(1143년)에 건축되었다고 한다. 전돌로 쌓고 갑석으로 마무리한 높직한 기단위에 건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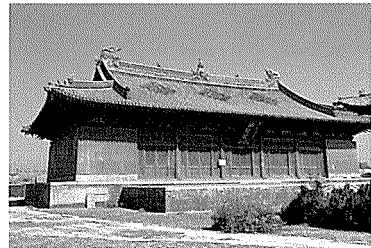
1)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앙의 마당을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院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건축군은 이 院落 몇 개가 겹쳐지는 배치를 형성한다.



崇福寺 金剛殿 정면



崇福寺 千佛閣 전경



崇福寺 彌陀殿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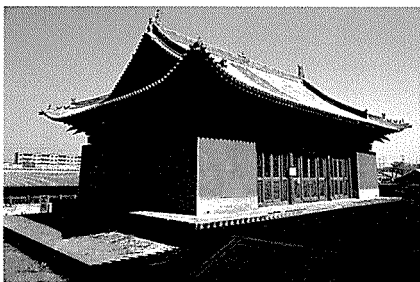
기단앞에는 넓은 月臺가 있고, 월대 정면 중앙에는 전돌과 돌을 가지런하게 쌓아 만든 계단이 있다. 계단 양 옆면은 전돌을 이용하여 여러 단으로 중첩된 직삼각형을 구성하였다. 경주 불국사의 대웅전과 극락전 돌계단 양측면의 버선코를 가진 삼각형 쇠시리가 생각난다. 계단 앞 양 옆에는 돌사자 하나씩을 세웠다. 형식화되고 경직된 모습으로 두 머리 다 입을 딱 벌리고 있다. 공(寶珠)을 가지고 노는 앞다리도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다. 정면 중앙의 5칸과 후면의 한 칸 걸러 한 칸씩 도합 3칸에는 문을 달았다. 彌陀殿 후면 문의 배치는 大同 上華嚴寺 大殿의 정면에서 본 적이 있다. 정면의 창호는 金代의 것으로 15 종류에 이르는 많은 花무늬를 조각하였다. 중국내에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金代의 창호라고 한다. 기둥에는 미세한 배흘림이 있고 상부는 등갈게 말아깎는 편수깎기를 하였다. 공포는 7鋪作(4출목)으로 柱心包에는 斜栱이 사용되었다. 주간포는 중심포에 비해 간략화된 형식이다. 귀포는 귀한대와 살미, 첨차 외에 斜栱이 사용되어 매우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다. 지붕은 녹색을 위주로 하여 군데군데 황색을 섞은 유리기와를 사용한 팔작지붕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보아 사전지식이 없더라도 최근에 보수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붕면에는 진한 녹색의 유리기와를 사용하여 마름모꼴의 무늬를 새겨 놓았다. 고려시대의 불화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지붕을 장식한 건물을 볼 수 있다. 용마루에는 鷓尾(鷓鴣)와 脊刹, 脊獸 등 장식기와로 장식하였다. 모두 유리기와, 즉 테라코타에 유약을 입힌 것이다. 중국의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수법이다. 내부의 기둥 중 일부는 외진주와 기둥열이 맞지 않는다. 즉 移柱法이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상부의 가구에는 특별한 구조법이 사용되었다. 기둥의 배열과 그에 따른 가구법의 적절한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觀音殿은 崇福寺의 맨 뒤에 위치한 건물이다. 정면5칸, 측면3칸의 金代건축이다. 건물의 외관은 彌陀殿과 거의 동일하다. 기단 앞의 月臺는 彌陀殿의 기단과 단차를 두고 연결되어 있다. 중국건축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기단처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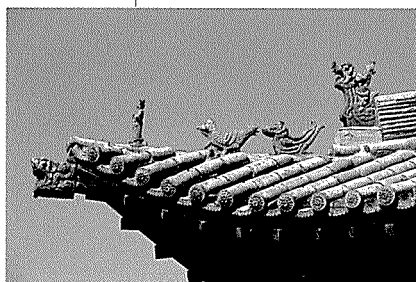
법이다. 정면의 중앙 세 칸과 후면 어간에 문을 두었다. 내부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遼·金代에 유행했던 減柱法을 사용하였다. 기둥상부에는 창방과 평방을 두고 공포를 올려놓았다. 주간포는 정면과 후면의 어간에 두 구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칸에는 모두 한 구씩의 공포를 올려놓았다. 중심포와 주간포는 동일한 형식의 외3출목으로 다만 측면의 주간포만은 살미의 외단을 다르게 처리하였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물매가 심한 편이며, 유리기와를 사용하여 彌陀殿과 비슷한 장식을 하였다. 지붕 측면의 합각부에는 조각이 좋은 懸魚가 매달려 있다.

崇福寺에서 나와 朔州역으로 향한다. 개찰이 시작되자마자 한바탕 전쟁을 치르듯 기차에 올랐다. 黃偉와 斜栱에 대하여 얘기를 나눈다. 斜栱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중국인 학자들은 斜栱이 사용된 사실만을 설명한다. 遼·金代에 갑자기 출현하여 유행하다 사라진 斜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주목하지 않는다. 생각컨대 斜栱의 발생은 다각형 전탑의 귀포와 관련이 깊은 듯하다. 사각형 평면의 건물에서 주간포를 올려놓을 때 柱間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공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柱間이 넓은 곳에 斜栱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사용된 斜栱은 점차 장식화의 경향을 띄면서 발전하게 된다. 얘기를 통해 斜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인 朔州이다. 자칫 목적지를 지나칠 뻔 했다. 서둘러 내린 朔州는 조그마한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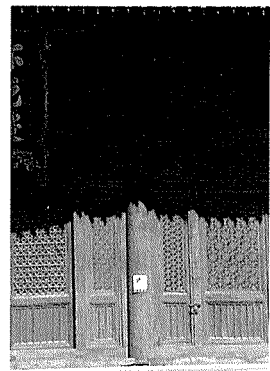
역을 빠져 나오니 숙박업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한다. 역 앞으로는 길게 직선의 도로가 뻗어 있었다. 길 좌우로 각종 과일을 파는 행상이 늘어져 있다. 오후 6시 10분, 우선 숙소를 정해야 했다. 鐵路招待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招待所는 우리의 여인숙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료가 매우 싸다. 하루에 1인 기준으로 10元, 우리의 1,000원에 해당한다. 지저분하고 낡은 시설, 샤워실은 물론 화장실도 없다. 방에는 1인용 침대 두 개와 책상, 의자가 놓여



崇福寺 觀音殿 전경



崇福寺 觀音殿 추녀마루의 장식



崇福寺 彌陀殿 기둥과 공포

있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黃偉는 책상과 의자를 방문에 기대어 놓는다. 안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소란스러운 소리, 그리고 밤새 우리가 자는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걸어 차는 소리…….

1995년 10월 7일

아침일찍 小州 버스정류장에서 太原과 大同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原平으로 향한다. 原平 버스정류장에서 惠濟寺까지는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했다.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느끼는 10월의 공기는 손끝이 마비될 정도로 차갑다.

原平 惠濟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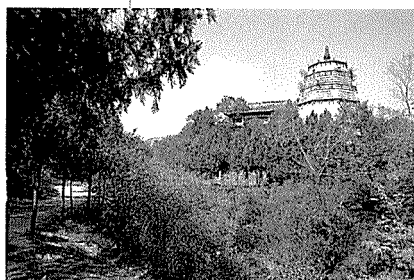
惠濟寺는 原平縣城 동북쪽 약 15km의 練家崗村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물에 씻겨내린 상처가 곳곳에 산재한 황토층이 노출되어 있었다. 양떼를 몰고가는 중년 목동의 모습이 한가롭기만 하다.

惠濟寺는 唐代에 창건되었으며, 宋代에 중건되었고, 이후 각 왕조를 거치면서 보수되었다고 한다. 절에 속한 한 암자에서는 曹氏노파를 모시고 있는데, 여기에는 절의 창건과 관련된 전설이 얽혀있다. 唐代에 절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기 위해 曹氏가 매일 물 한 항아리씩을 보시하다가 공사가 끝난 후 죽었다. 이에 사람들이 曹氏노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암자를 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전설이 있는 얘기거리가 있는 곳은 정감어린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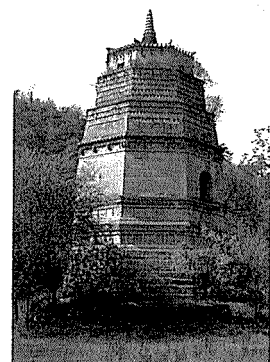
山門, 觀音殿, 鍾樓, 伽藍殿, 東西廊廡, 大佛殿 등의 건물이 남아있다. 보수한지가 오래된 듯 건물들은 매우 낡은 모습이었다. 솟을대문 형식으로 높이 솟아 있는 문을 지나면 大佛殿을 중심으로 좌우와 앞쪽에 건물이 위치한 중정형의 공간이 나온다. 문 오른쪽으로는 특이한 형식으로 높게 솟아 있는 鍾樓가 있다. 중심건물인 大佛殿은 '千佛殿'이라고도 하는데 정면5칸, 측면5칸의 팔작집이다. 宋代의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후대에 개조된 듯 하고 내부구에서만 宋代의 모습을 약간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大佛殿 앞 서측 廊廡



惠濟寺에 모셔진 塑像들



林泉寺 진입광경



林泉寺 靈崖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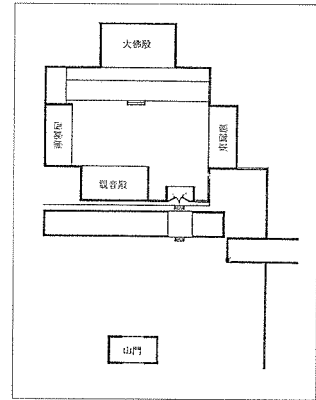
에는 채색이 벗겨진 소장 몇 軀가 있는데, 조각이 좋고 연대도 오래된 듯 하다.

자연스러운 배치형식 - 原平 林泉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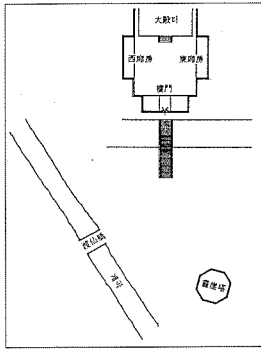
林泉寺는 宋代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창건당시의 이름은 '土聖寺'였다고

한다. 原平縣城에서 서남쪽으로 15km 떨어진 水油溝村 북쪽의 한참을 산속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山西省에서는 보기 드물게 제법 숲이 우거져 있다. 절 옆으로는 계곡물이 흐른다. 그 위에 '渡仙橋'라고 부르는 석조 홍예교가 설치되어 있다. 홍예의 이맛돌에는 禁獸가 조각되어 있다. 다리를 건너 좌측으로 꺾어지면 60단 정도로 높다랗게 쌓아올린 돌층계가 나온다. 돌층계 위에 중층누각이 있다. 佛敎經典을 보관하던 藏經閣이라고 하지만 건물의 형식으로 보아 藏經閣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듯 하다. 1층 어간에 절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상층에는 넓다란 누마루가 형성되어 있다. 일종의 樓下진입인 셈이다. 원래 林泉寺를 찾은 이유는 절앞에 있는 전탑을 보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진입방법을 중국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었다.

누문 안쪽에는 뒷편으로 大殿터가 남아 있고 그 앞 좌우에 配殿이 있어서 중정을 형성하고 있다. 전탑은 누문 앞쪽, 돌다리를 건너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전탑 옆에는 지정문화재임을 알리는 靈崖塔이라고 새긴 표석이 있다. 양식상으로 보아 宋代에 건축된 탑으로 추정된다. 평면은 8각형으로 그 형식이 특이하다. 유난히 높은 기단 위에 4층의 탑신이 올려져 있다. 1층탑신은 다른 층의 탑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동북쪽에 감실의 문이 있다. 1층 옥개 하부에는 宋代



惠濟寺 배치도(non scale)



林泉寺 배치도(non scale)

전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략화된 공포가 새겨져 있다. 2층과 3층의 탑신 각 면에는 수많은 佛像이 조각되어 있다.

忻州 金洞寺

金洞寺는 縣城에서 서북쪽으로 20km 떨어진 西呼延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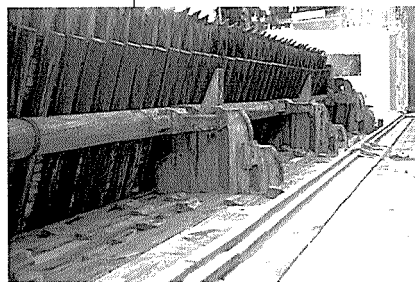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황토층으로 이루어진 완만한 경사지에 대추나무숲이 형성되어 있다. 창건년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건축적인 특징으로 보아 적어도 宋代부터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절의 배치는 일반적인 배치와는 달리 동서로 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중심축도 형성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 林泉寺나 惠濟寺, 그리고 金洞寺와 같은 특수한 배치 형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절은 한 노파가 관리하고 있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준다. 건물의 잠겨있는 문들도 손수 열어준다. 덕분에 건물 내부사진도 자유스럽게 찍을 수 있었다.

金洞寺에는 正殿을 비롯하여 祖師堂, 觀音殿, 天王殿, 鍾樓 등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낡은 상태였다. 대부분의 건물은 明·清代에 건축되었으며, 祖師堂만이 오래된 양식을 지니고 있었다. 鍾樓는 惠濟寺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높다란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祖師堂은 정면3칸, 측면3칸으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평면을 한 팔작집이다. 정면의 어간에만 두쌍의 판장문을 두었고 그 양쪽 협간에는 살창을 두었다. 내부에는 외진주열에 맞추어 네 개의 고주를 두었다. 주심포와 귀포는 외2출목으로 제1출목선상의 첨차가 생략된 儉心造이다. 柱間에는 공포를 두지 않고 뜯창방(柱頭枋)에 첨차의 형태를 조각하였을 뿐이다. 평면형식이나 가구법 등으로 보아 北宋代에 속



金洞寺 祖師堂 정면



金洞寺 祖師堂 측면공포

하는 건물로 보인다. 특히 祖師堂 내부 중앙에는 '先師祐民之閣'이라고 쓴 현판이 걸린 중층누각이 조각되어 있고 그 속에 祐民의 雕像을 모셔놓고 있다. 이 중층누각은 祖師堂 건물 자체와 비슷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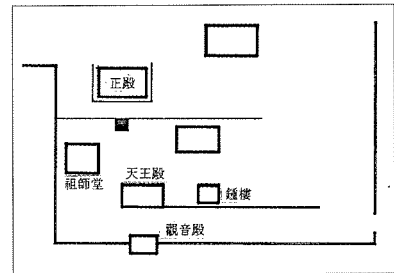
金洞寺를 떠나 太原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40분이었다. 山西省의 중심도시이지만 대도시답지 않게 어둠속에 띄엄띄엄 위치한 가로등과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보일 뿐이었다. 太原은 전에 한 번 와본적이 있다. 太原에서 가장 유명한 옛 건축물은 晉祠이다. 晉祠의 중심건물은 聖母殿으로 宋代의 건물이다. 94년도에 방문했을 때 수리 중이었다. 그 수리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답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995년 10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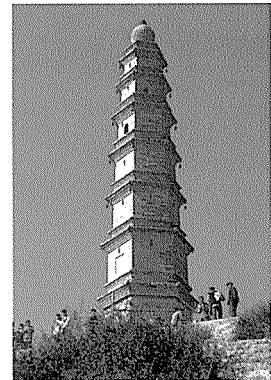
오전 5시 30분 기상하였다. 多福寺와 賈大夫祠를 가기 위해서는 오전 6시 45분에 太原北驛에서 출발하는 上蘭村행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上蘭村에는 華北工學院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다. 아침일찍 기차로 등교하는 학생들 무리에 끼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간다.

산 정상에의 사찰 - 多福寺

多福寺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약 20분 달린 곳에 위치해 있다.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웬걸, 多福寺는 산 정상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북이 많기도 하지……. 이 산은 太原에서도 관광지로 유명한 名山이라고 한다. 그러나 높은 나무나 계곡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인이 자랑할 정도의 名山이



金洞寺 배치도(non scale)



多福寺 전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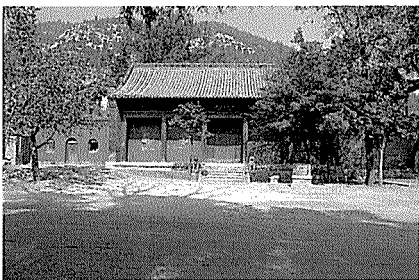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낮 동안의 해는 아직 뜨겁다. 그래서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야 하는 산행은 힘들기만 하다. 가을산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처 太原시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도착한 곳은 절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전답이다. 6각7층으로 宋代에 건축되었다고 하지만 그리 연대가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 또 다른 봉우리 정상 부근에 계곡을 끼고 多福寺가 위치해 있다. 唐貞元2년(786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宋末에 병화로 불타고 明 洪武년간(1368-1398)에 중건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山門, 鍾樓, 大雄寶殿, 文殊閣, 藏經樓, 東西廂殿 등이 있는데, 모두 明代의 건물이다. 多福寺가 위치한 봉우리 정상에는 제법 많은 수의 민가들이 있다.

元대의 건축 - 祠廟 竇大夫祠

多福寺를 내려와 다시 上蘭村으로 향한다. 華北工學院 정문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汾河를 바라보며 竇大夫祠가 위치해 있다. 竇大夫祠는 封地가 太原이었던 晉國의 大夫인 竇棼가 도랑을 파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였기 때문에 後人들이 이곳에 祠를 세워 그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祠의 창건년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唐代에는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山門을 비롯하여 獻亭, 大殿 등의 건물이 있는데 모두 元 至正3년(1343)에 중건된 것이다. 그러나 山門의 건축양식, 특히 공포나 가구법에는 金代의 수법이 보인다. 평면이나 구조, 양식 등이 특이하여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로 보인다. 祠의 옆쪽에는 烈石山 바위 아래에서 차가운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 물의 온도가 낮아서 '寒泉'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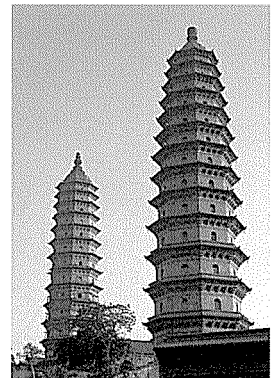
山門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오후 2시나 되어야 문을 연다고 한다.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太原시내로 돌아왔다. 太原시내에는 오래된 도시답게 많은 유적들이 있다. 崇



竇大夫祠 山門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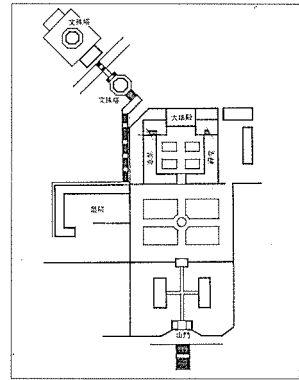


雙塔寺 大雄殿 정면



雙塔寺 雙塔 전경

善寺, 文廟, 그리고 현재 山西省博物館으로 사용되고 있는 純陽宮, 雙塔寺 등……. 그리고 太原 근교에는 중국의 五大石窟 중의 하나인 天龍山石窟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94년도 답사때 방문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그 때 답사하지 못했던 崇善寺, 文廟, 雙塔寺를 들렀다. 먼저 찾아가는 곳은 崇善寺와 文廟였으나 휴관중이거나 수리중이었다. 간단한 답사를 마치고 雙塔寺로 향한다.



雙塔寺 배치도(non scale)

明代 磚造建築의 집합체 ; 太原 雙塔寺

太原시 동남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雙塔寺는 明萬曆년간에 高僧 佛燈이 칙령을 받들어 창건하였다고 한다. 雙塔寺의 본명은 永祚寺이다. 雙塔寺라는 이름은 절안에 雙塔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雙塔寺에 현존하는 주요한 건축물은 모두 磚造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磚造건축을 '無梁殿'이라고 부른다. 입구인 山門 앞에는 높다란 계단이 있다. 山門에서 大雄殿에 이르는 중심축이 형성되어 있다. 大雄殿은 중층의 無梁殿 형식으로 1층은 大雄殿 2층은 藏經閣이다. 중심축선 좌측으로 담장을 쌓아 만든 별도의 구역에 '墨院'이라고 부르는 花園을 만들어 놓았다. 마당에 각종 화초를 심고 그 주변으로 'ㄱ'자형의 長廊을 만들었다.

雙塔은 절 뒷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탑의 형식은 동일하다. 8각형 13층으로 탑의 이름은 '文宣'이다. 각 층 처마 아래에는 공포를 새겨 놓았다. 최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내부는 2중의 공간이 형성되어 중앙을 빈 공간으로 하고 외곽의 공간을 계단으로 만들었다. 중앙부의 각 층 천장은 전들을 내쌓는 방식으로 窟窿을 만들었다. 이 雙塔의 정상에 오르면 雙塔寺 전역은 물론 太原시내를 조망할 수 있다.